

나의 'IT 외길 30년'



권재석 (주)신세계아이앤씨/대표이사

일 반적으로 어떤 사람에게든 한 분야에서 30년 이상 직장생활을 했다는 것은 인생에서 그 자체로 대단한 업적이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더구나 그 분야가 기술변화가 급격한 IT분야에서 였다면 보통사람 같았으면 눈의 휘둥그레 해질 사건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전산'이라는 한 우물만 30여년을 내리 파왔던 나에게는 지난 30년이 눈 돌릴 사이 없이 앞만 보고 달려나갔던 찰나의 순간에 불과하였고, 또 IT분야의 많은 선배 중에 3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도 많기에 큰 자랑거리가 될 수는 없겠다. 그러나 삼성그룹 전산 역사의 한페이지에 주인공으로 근무했기에 조그마한 기록을 남긴다는 차원에서 몇자 적어보려고 펜을 들었다.

내가 처음 전산을 접한 것은 72년도, 삼성그룹 공채 13기로 입사하여 제일 모직에 발령 받았던 것이 시작이었다. 내 생각으로는 경영학 전공자로 삼성에 입사해 제일모직으

약력 : • 83~90 (주)신세계 전산실장 • 91~94 삼성데이타시스템(주) 이사
• 95~96 (주)신세계백화점 상무이사 • 현재 (주)신세계I&C 대표이사

로 발령을 받았기에 제일모직 대구공장 경리과 정도가 당연하지 싶었다. 하지만 당시 선대 이병철 회장께서는 ‘삼성그룹도 70년대 이후는 경영에 컴퓨터를 활용해야 한다’라는 방침을 하달하시면서 그룹에 컴퓨터를 도입할 것을 지시하셨다. 회장님의 말씀은 당시 금과옥조이고 그 자체로 불문율이었음은 익히 짐작이 가시리라 믿는다. 이에 따라 모기업인 제일모직에 컴퓨터 도입을 위한 T/F로 EDPS반이 구성되어 선배사원 2명이 근무하고 있었고, 나는 삼성그룹 공채 전산1호 EDPS요원으로 발령 받아 근무하게 됐다. 또한 회장님께서 전산실 요원 발령에 대해 “현업 업무를 잘 아는 머리 좋은 사람으로 구성하여 시스템을 개발시켜야 성공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각 사업부 (생산, 판매, 수출, 경리, 인사 등) 현업에서 2년 이상 경험 있는 가장 우수한 인력을 추천 받아 EDPS요원과 함께 전산실 요원으로 발령을 냈다.

드디어 73년 1월, EDPS T/F팀을 모체로 해서 제일모직 전산실이 발족되면서 드디어 나의 전산생활 30년은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다. 그 당시 초대 전산실장으로는 제일제당 기획과장이었던 나준 과장(이후 롯데정보통신 초대 대표이사 역임)이 부장으로 승진해 발령 받았으며 전산실 요원은 12명으로 시작됐다. 전산실이 발족하고 전 요원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전산교육을 받는 일이었다. 전산실 직원 모두가 아침에 IBM교육실 (지금의 소공동KAL 빌딩 19층)로 출근하여 컴퓨터 교육을 받고, 저녁에 회사에 와서 퇴근하는 생활을 했다. 나는 입사동기들을 만나면 “나

는 월급 받고 공부하며 회사 다닌다” 고 자랑하며 즐겁게 전산교육을 받았다. 당시만 해도 회사에서 3개월 이상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주 드물었고, 인재 육성에 대한 기업들의 원칙도 지금처럼 잘 정비되지 않아 교육을 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모든 사원들이 부러워할 만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전산실 업무의 화려한 겉만 보고하는 짧은 생각이었다. 당시의 전산실 업무는 지금의 3D직종보다도 훨씬 힘들고 어려운 직종 중의 하나였다.

당시 제일모직에서 처음 발주한 기종은 IBM S360 M125 128K시스템이었다. 이 시스템은 도입, 설치되기 전인 73년 중에 IBM S370 M135 256K로 교체됐고, 발주 후 자그마치 1년 뒤에 도입되어 74년 9월15일 선대 이병철 회장을 모시고 가동식을 가졌다. 그 당시 모든 회사들은 프린터로 초상화를 찍으면서 가동식을 가지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었고, 삼성그룹도 이병철 회장의 초상화와 당시 제일모직 사장이셨던 이은택 사장의 초상화를 찍어내면서 기계실 가동식을 가졌었다. 지금 시스템과 비교해서 PC도 그렇게 적은 용량의 PC는 어디 박물관에나 가야 볼 수 있을 텐데, 그 작은 기계를 들여놓고 그룹사가 공동으로 사용했으니 그 고충이야 익히 짐작들을 하시리라 믿는다.

또한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DBMS가 제대로 개발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하려니 어려움이 많았고, IBM Data Base DB2의 전신인 D/Bump가 너무 형편없어서 Back-up, Relord를 밥먹듯 하며 야근을 해야 했다. 또한 신입사원으로 전산업무를 시작했던 나로서는 선배사원

들이 컴퓨터를 다 쓰고 나서야 사용이 가능했기에 선배들이 퇴근한 이후부터 작업을 시작해 새벽이 다 되어서야 작업을 끝냈던 힘든 시절을 보냈다. 이러한 생활이 반복되자 아예 삼성빌딩 주변 목욕탕에 세면도와 옷을 갖다 놓고, 그곳에서 씻고 옷 갈아입으며 출근했을 정도로 바쁘고 어려운 시절을 보냈으며, 한 달에 20일을 회사에서 야근해야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 당시에 또 시대에 민감한 사람들은 이러한 전산실 업무를 재빨리 그만두고 다른 업무를 찾아 회사를 옮겼고, 전산실로 발령이 날까봐 모든 직원들은 아예 겁을 집어먹을 정도였다. 또한 ‘컴퓨터를 탈출하자’는 탈컴운동도 유행처럼 번지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누군가가 ‘피할 수 없다면 즐기라’고 했던가. 당시의 나는 어려운 전산업무를 마냥 피하며 지내기보다는 이왕 하는 전산 업무면 오히려 즐기면서 하자며 발상을 전환했다. 모두가 꺼리는 야근도 매일 하면서 내가 맡은 전산업무에서 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으려 애를 썼던 것으로 기억한다. 또한 나 이외에는 이렇게 어려운 업무를 애써 자원하는 사람도 없었기에, 하늘이 주신 평생의 내소임으로 알고 불평, 불만을 일삼기보다는 스스로의 힘으로 어려움을 이겨 나가며 보다 더 나은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굵은 땀방울을 흘리며 젊은 시절을 보냈다.

그런 세월이 어느덧 흘러 IT라는 한 분야에서 벌써 30년을 지나고 나니, 후배 전산인들에게도 이제는 해줄 말이 생긴 듯 싶다. 항상 젊은이들은 세상의 변화에 휩쓸리기 쉽고, 순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 자신의 파던 우물을

버리고 다른 우물을 파기 쉽다. 하지만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 되는 것’은 단순한 자연의 이치에 그치는 것이 아닌, 우리 인생에서 가장 명심해야 할 교훈이라는 말을 해주고 싶다. 당시 회사 내 모든 이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외면 받았던 IT분야가 지금에 와서는 가장 각광 받으며 ‘현대기술의 총아’로 불릴지는 그 누구도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지 않은가.

요즈음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이라크 공격으로 불안감이 고조되고, 국내적으로는 SK글로벌 분식회계 사태 등으로 기업의 투명이미지가 손상을 입어 대외 신인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등 경제상황이 나날이 어려워져 불안한 미래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불안한 미래를 자신이 혼자 책임지는 것은 그 어떤 일보다도 어려운 일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나는 회사에 새로 입사하는 신입사원이나 경력사원과의 상견례에서 “자기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려 하지말고, 회사에 미래를 맡기라”는 말을 빼놓지 않는다. 자신의 일생을 회사가 책임져 준다는 믿음 아래 회사에 인생을 맡기고, 그곳에서 회사의 발전과 더불어 자신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인생의 등식을 세운다면 그가 속한 회사도 발전하고, 자신의 인생에도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30년의 경험에서 배웠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든 이가 생각하기에 지극히 평범한 그 한마디가 나의 ‘IT외길 30년’을 유일하게 지켜줬고, 내 삶을 현재의 위치에 서게 만든 이정표였고 나침반이었음을 돌이켜 보면서 이만 줄필을 줄일까 한다.